춘천 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www.holycity.or.kr

발행인 : 이 원 호

3.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
5. 기독교 미술은 죽었다(?)
9. 우리 곁에 있는 山 오봉산
11. 추석황금휴가 감사와 사랑의 시간

2007년 9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6호



성시화를 위한 2007 춘천선교대회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살기 좋은 춘천, 시민과 함께 하는 2007선교대회"는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 성시화'와 'Fire again 2007'을 표어 하에 평양 대부흥의 맥을 이어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춘천에서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본 행사는 크게 5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열리게된다.

1. 주일(오후7:30), 이단문제를 위한 이용호 목사의 특별강연
2. 월요일부터 수요일저녁(7:30), 장경동 목사의 전도부흥회
3. 화요일(오전9:00), 춘천성시 축구대회
4. 목, 금요일(오전7~10:00), 영역별 성시세미나 및 포럼과 산상기도회
5. 토요일(오전11:00), 기아체험난민 걷기대회

모든 프로그램에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게 될 본 대회를 통해 1)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춘천시와 시민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2)1907년 평양 대부흥과 그 성령의 불길을 춘천에 점화하고, 3)영역별 관계망을 통한 도시 내적인 변혁과 해외선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주일저녁 '이단문제를 위한 집회'는 현재 춘천에서도 극렬하게 활동 중인 이단들의 실전적 상황과 그 해악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다. 월요일부터 열리는 '전도부흥회'는 미디어를 통해 유머와 탁월한 설교로 잘 알려진 장경동 목사의 생명의 잔치가 수요일까지 이어지며, 화요일엔 '성시축구대회'를 포아멘의 진행으로 일반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멋진 시간들도 갖게 된다. 목 · 금요일에 열리는 '선교 · 성시세미나'는 이영길 선교사(인도)에 의한 변혁한국의 국제대표인 루이스부쉬 박사와 탐 빅터 목사와 함께 동경성시화운동본부회장 •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도시변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토요일엔 월드비전과 함께 '기아체험 난민걷기대회'를 춘천종합운동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민걷기대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 대회기간에 맞춰서 '강원기독교미술인협회전'이 8월 31일부터 6일까지 춘천문화관에서 열리게 된다.

다양한문화 예술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며 성시화의 꿈을 꾸게 될 '2007춘천선교대회'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비전과 생명의 동산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조영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9월13일~10월12일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 중동 지역의 사역자들 모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느낀 사역자들이 계획하였는데, 때마침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과 맞물렸다. 그러나 이는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리라!

이슬람력인 음력에 따라 결정되는 라마단 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올해에는 9월 13일경에 시작되어 10월 12일경에 끝난다. 라마단의 금식기간에 맞추어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돕는 안내 책자는 16주년을 맞이하였다(1993년 3월에 처음 발간한 이래 이슬람력상으로 16년이 지났으며 올해는 이슬람 음력으로 1428년이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와 금식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책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무슬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둘째, 무슬림들이 특히 경건을 사모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이다. 30일 기도'는 이슬람에 의한 영적 오류, 테러 분쟁은 반대하지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이 기도 운동은 무슬림을 향한 겸손과 사랑, 존경, 섬김을 바탕으로 화해와 이해의 정신을 심어왔다.

이 책은 무슬림을 위해 중보 하고자 하는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이를 통해 무슬림 세계를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무슬림의 필요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슬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를 바란다(본 책자가 추천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엔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간증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슬림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30일 기도운동은 한때, 25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임이 1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의 나라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기도운동으로 성장했다. 특별히 2005년에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책자 수천 부가 인도네시아에 배포되었고, 스리랑카에는 350여 권의 영어 기도책자와 1,000권의 타밀어와 600여 권의 싱할리 어 기도책자가 배포되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단, 언어, 문화를 초월해 무슬림 세계를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2007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라마단 기간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제적으로 2,0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13억의 무슬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것이다.

특별히 아프간의 탈레반들에 의해 강압적 억류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19명으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때이다. 현재 이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을 그들의 권리와 나라의 독립을 위한 당위성을 가진 선한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몸질이나 포로 교환 등 이익을 위한 테러로 볼 것인가? 또는 무슬림의 종교적 신념을 위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나 대항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더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무슬림들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른 방향의 변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며 이 시대의 평화와 진정한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힘이나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참된 중보기도를 통해 무너지고 허물어진 틈을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변화의 운동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책자가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슬림 안에 이루실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들을 기도로 섬기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자.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참여방법**
교회 모임, 직장 신우회, 가정예배, 개인예배, 여러 중보기도 모임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한 날을 택하여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

◆ **2007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신청방법**
* 전화나 FAX 또는 E-Mail 로 신청 가능 (신청자 이름과 신청부수 게재).
* 책자 가격과 우편료를 입금하시면 우송해드림.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은 예수전도단 춘천 지부로 문의.
☎ 252-1128, 010-7152-0135 이선희 간사
* 책자 가격: 권당 2,000원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세상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서한국 지도위원으로 섬기시는 김동호 목사 (높은뜻 숭의교회)와의 인터뷰입니다.





"기독청년들이 통일한국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
"한국교회가 영적진리에 바로 서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민주적인 교회로 회복해야..."

김동호 목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며 실천하는 분이시다. 서울 이문동 동안교회를 개척하여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으나 2001년 6월 동안교회를 사임하고, 한 대학의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높은뜻숭의교회"를 새롭게 개척,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신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해 소득세를 내는 목회자로 유명한 김 목사는 독특한 예산 배분 원칙이 있다. 교회 예산과 자신의 수입 중 30%는 적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쓰고 나서 아껴서 베풀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떼놓고 쓰자"는 것이다. 요즘 그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며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준비 안 된 통일은 파멸일 것"이며 "통일의 준비는 탈북자를 우리 이웃으로 맞아들이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20여개의 교회가 협력해 세운 여명학교(탈북청소년교육시설)를 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상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기르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07 성서한국 통일한국대회의 지도위원으로 섬기면서 갖는 기대감은?

현재 성서한국운동을 이끌어가는 세대는 40대이다. 내가 만나고 교제해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을 이루어 성서한국대회를 준비했다. 그들이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열심히 격려하고 싶다. 이번 강원대에서 열린 통일한국대회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각 영역-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 대회를 통해서 통일의 한계와 도전의 가능성을 동시에 깨닫고 있다. 통일이라는 주제가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은 통일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각 영역의 강사로 참여하여 통일운동을 선도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통일한국운동이 좀 더 심화되어지고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통일한국을 꿈꾸는 기독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마다 소명이 있고, 시대마다 사명이 있다. 특히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은 이 시대가 지나면 다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통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청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다. 우리가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통일의 시대는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화가 될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탈북자가 1만 여명이 들어와 있다. 1만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10만 명, 100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들려온다면 남한사회는 크게 혼란을 겪을 것이며, 통일이 된다고 해도 통일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듣다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성경말씀이 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더4:13-14)"*

현재 아프간에 분당샘물교회 의료봉사팀이 억류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교회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근래에 들어 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한다.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과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선도하고,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양성하며,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민족의 기업을 세웠다. 기독교인하면 애국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현재 사람들은 개신교보다도 천주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게 이미지 관리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한국개신교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교회는 36억을 들어 백주년 기념관을 세웠다. 그런데 천주교는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11억을 들어 맹인 게안시술을 해주었다. 집이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지 게임에서 진 것이다. 아프간에 억류 중인 의료봉사팀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나쁜 일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 또한 선교보다도 봉사를 위해 갔다. 인질로 잡은 탈레반이 더 나쁘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교회를 욕한다. 이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진 한국교회를 비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좋은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교만함의 문제이다. 증세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증세교회는 힘과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타락하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섬길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의 왕이 되어서 집단적 힘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 정치세력가 하나가 되어 정치권력에 휘들리면 안된다. 교회는 항상 영적진리에 바로 서서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해선 안된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듯,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과 예의없는 종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한 가지 있다. "민주시민훈련"이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훈련을 받아 민주적인 교회,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민주를 외치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교회는 입력단체가 아니다. 이익집단도 아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다.

높은뜻숭의교회와 교회의 비전을 소개해주세요.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은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 물이 메마른 곳에 펌프질을 할 때 한 바지의 물을 부어 품어 올리면 신기하게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의 역할이다. 높은뜻숭의교회는 세상을 위한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척 초기부터 남산과 서울역주변의 쪽방사람들(하루6000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창업하도록 도왔다. 또한 높은뜻숭의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교회는 집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현재 200억의 예산을 세워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장학재단을 마련해서 학교와 아카데미를 통해 사람을 기르는 일에 힘쓰려고 한다. 특히 여명학교를 집중적으로 도와 통일이후의 북한선교를 준비하고자 한다.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춘천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격려의 말씀부탁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은 성서한국운동과 차이가 없다. 영역별 선교운동으로써 "기독교 사회책임"이 주제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시화를 위해서는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이것은 큰 교회들이 잘 해 주어야 한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앞세워 협력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게 된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에서 2007 성서한국 통일선교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구봉산에서 춘천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춘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취재일시: 7월 26일 / 진행: 조영춘, 정재호 사진: 김미경]



독수리 제자들, 중국에 다녀오다!

2007 BEDTS 중국 전도여행

BEDTS(Business Eagle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는 15주의 강의와 2주의 전도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집중적인 제자 훈련과정이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개개인의 부르심과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 마태복음 28장 1절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훈련하도록 한다.

춘천 BEDTS는 매년 4월에 새 학기가 개강하여 현재 4기가 진행 중으로 목, 금, 토 저녁에 강의가 있다. 그리고 학기 중 개인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땅 밟기 전도 여행

이번 춘천BEDTS 학생들은 중국, 심양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14일간의 전도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14일간의 휴가를 얻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 안에서의 적지 않은 걸림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모두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첫 도착지 대련



우리가 중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정말 흥미진지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원래 가이드를 해주시기로 했던 선교사님의 특정한 사정으로 약속이 틀어지면서, 일정이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쉬어버렸다. 한국도 아니고, 사람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자 상당히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황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우리는 불평하기 보다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팀을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히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정은 그날그날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고, 새롭게 연결된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전도여행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대련에서의 첫 사역은 구제사역으로부터 시작했다. 중국에 연결된 선생님의 도움으로 빈민촌에서 우리가 준비해간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눴고, 그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빈민촌의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와 게임을 하며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심양을 축복하며

대련에서 우리가 그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곳이





바로 심양이다. 우리팀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심양에서 보내면서 중국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 뇌성마비아이들이 있는 소외된 병원을 방문해서 함께 놀아주고 드라마 공연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고, 시골의 삼자교회 방문하여 주일학교(에베인도, 설교, 레크리에이션 지도), 어른오후(에베인도, 썸공연, 간증) 에베를 인도하며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가정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인도, 간증, 드라마, 댄싱공연으로 교제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중국은 선교나 전도가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여 중국의 지역을 이동하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선포하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



하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국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10일간의 중국전도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컨퍼런스 OPEN2007'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삶을 다짐하였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전체 중국인구의 수에 비하면 적지만 결코 적지만은 않은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의 존재를 부분으로나마 보고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경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더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진, 마치 초대교회 같은 전폭적인 순종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중국은 더 이상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다. 이미 그 땅은 소망의 땅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교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은 중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의 대약진의 시대에 중국은 그 거대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

[춘천BEDTS]

***내년 BEDTS는 2008월 4월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33-252-1128(YWAM춘천지부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기독교 미술은 죽었다(?)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영성 회복과 소명의 갱신을 열망하며...

오늘 기독교미술인 스스로를 향하여 "기독교 미술은 죽었다!" 라는 외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이 시대 기독교 미술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기독교 미술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반어적 각오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외침이었다. 이러한 각오와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미술인 개개인의 영적 갱신(renewal)과 연합이다. 8월 10일 강화도 소재 성산에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캠프는 이러한 갱신과 연합을 통하여 기독교 미술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여는 축복된 시간이었다.

현대 기독교미술의 정체성

기독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행적으로 먼저 기독교가 무엇이냐? 미술이 무엇이냐? 하는 근원적이고도 포괄적인 물음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미술에 대한 카테고리 안에서 근원적인 기독교미술의 문제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은 기독교미술을 논함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믿음'이라는 신앙적 토대 없이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예술적 행위도 기독교적일 수는 없다. 기독 신앙은 인간의 논리적 사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토대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예술적 표현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기독교 미술은 소재주의적 발상과 표현보다는 내적 성찰이 선행된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시원이 되고 그러한 시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본질을 재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속에서 생성된 예술적 욕구와 "깊은 묵상"이라는 사유적 예배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미술가들의 미숙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기독교 미술가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에 힘입어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일 듯" 해야 할 것이다.

렘브란트의 신앙과 예술



17세기 회화의 거장 렘브란트는 예술적 재능을 자신을 자랑하려는 데에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존귀,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였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직업과 사역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렘브란트에게서 배우게 된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전 세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그의 예술적 탁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흔히 접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 사랑, 자비,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 은유, 치유, 구원, 승리 등의 내용이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성경은 드라마틱한 소재 이상의 소스였다.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신 확실한 증거였다. 말하자면 렘브란트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고백이 분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경그림을 도저히 기계적으로 그릴 수 없었다. 믿음의 고백이 개인적이듯 그의 성경그림도 개인적이었다. 온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실과 신령, 그리고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깃들어있다. 렘브란트는 숨을 거둔 해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성경그림을 계속해갔다. 이 시기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화려한 옛 명성을 과거 속에 묻어둔 채 외로운 노인으로 쓸쓸하게 지냈다. 게다가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마저 5명씩이나 잃는 역경 속에서, 그리고 재산을 모두 차압당하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렘브란트는 꿋꿋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갔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작품도 함께 심오해졌으며, 외향적이던 작품세계는 점점 더 내면화되었고 관객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였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험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셨듯이 렘브란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와 죄사함을 간구하였다. 재산, 명예, 건강, 가족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렘브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 곁을 떠나갔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난의 어둠이 짙어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 이렇듯 렘브란트의 예술은 그 자신의 경험과 영적인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갔다.

가장 서글픈 예술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품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전혀 갖지 못한 채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현하는 자이다.(F.쉐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신앙과 예술관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미술가들의 귓가에 크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편집부 이관형]



2007년 강원도기독교미술인전

- 일 시: 2007년 8월 31일(금) ~ 9월 6일(목)
- 장 소: 춘천미술관 (☎ 241-1856)
- 알 림: * 전시회를 통한 작품판매의 수익금은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사용됩니다.
  *강원도내 거주하는 기독미술인들을 환영합니다.
- 강원기독교미술인협회 사무장: 016-370-0380

렘브란트와 바로크의 거장들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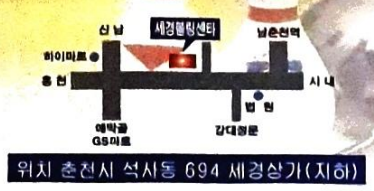
- 일 시: 2007년 9월 30일까지
-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전관
- 작 품: 16~18세기 초 바로크 회화 걸작 64점
- 문 의: www.moca.go.kr

명가 만두



※만두 名人이 빚은 20년 전통의 즉석 손만두
※테이크아웃수제 만두 춘천점
SINCE 1985
춘천 중앙로 농협 앞
☎ 242-8680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성경중심적 신앙으로 선교를 지향한다

춘천우리교회는 창립된 지 7년째를 맞이하는 젊은 교회이다. 2000년 5월, 김원중 목사와 몇몇 소수의 가정이 기도 가운데 퇴계동에 설립한 춘천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춘천지역의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성경 중심적이며 선교지향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퇴계동 인근의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전한 이후 큰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춘천우리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우리교회(김원중 목사)편입니다

김원중 목사

김원중 목사의 고향은 경상남도 합천이다. 합천은 지금까지도 유교세와 불교세가 강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탓에 김 목사의 어린 시절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로 이어졌다. 그러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 김 목사는 진학을 계기로 대구에서 처음 하숙생활을 하게 된다. 누군가에 의해 교회로 끌려갔다?는 하숙집 친구를 찾기 위해 우연히 교회를 방문했던 어린 김원중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를 맡을 정도로 열정이 타올랐던 김 목사는 신학대학에 진학하려했으나 유학자요 교직에 계셨던 부친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한 김 목사는 캠퍼스에서 역시 특수교육을 전공한 김성희 사모(현 춘천 등내초등학교 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아닐 수 없다고 김 목사는 회고한다.



신학공부를 마치고 첫 전임사역지로 부임한 곳은 춘천온누리교회였다. 김 목사는 1994년부터 지난 2000년 5월에 춘천우리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춘천온누리교회에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다. 성가대를 지휘하고 중고등부와 대학부사역을 전담하면서 많은 목회의 수련과 의미 있는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는 70대까지, 그러나 30-40대 중심등력이 되어 움직이는 매우 활력 있는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춘천우리교회를 한 마디로 말하면 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몇 년 전 몇몇 등역자들과 함께 NCD 코리아에서 심도있게 셀 교회에 대하여 연구한 김 목사는 오이코스전도와 알파사역을 통한 불신자 전도에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작년부터 알파코스를 적용하여 의미 있는 열매를 얻었으며, 거기에서 얻은 열매와 초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선교사역이 작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송창근 집사(현 한림대 기독교수회 회장)의 지도로 중국인들 5-6명과 몽골인 2-3명이 꾸준히 성경공부와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교경협의회의 임원일 뿐만 아니라 GBT사역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원중 목사는 연합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사역자이다.

교육 분야를 맡고 있는 안규일 전도사와 최재용, 안하영, 박은미, 그리고 셀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영란 집사를 비롯하여 안영주, 원주연, 박효심, 강윤구, 이재선, 천지수, 송창근 집사 등과 보이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기에 춘천우리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보 더욱 부흥 성장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춘천우리교회

춘천우리교회의 모토는 "성경 중심적 신앙으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모토에 따라 춘천우리교회는 설립초기부터 해외선교와 국내선교에 힘을 기울였다. 현재는 인도네시아(박상배 선교사)와 태국(박남규 선교사, C국(김원주 선교사), 말라위(조선인 선교사), 베트남(박순종 선교사), 터키(이동욱 선교사)를 비롯하여 국내의 GBT와 교경협의회, 재활원, 예수제자은등 등을 후원하고 있다. 김원중 목사의 말투와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선교사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일까.



춘천우리교회는 건강한 세대별 구성을 이루고 있다. 아래로는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비롯하여 위로





성경중심적이며
선교지향적인 사랑의 공동체

춘천우리교회 이전

담임목사 김 원 중

☎033)253-2161, 010-2061-2161

춘천시 퇴계동 887번지
(퇴계동 은행나무 막국수 위)

춘천 성시화 축구대회

*일시: 2007년 9월 4일(화) 오전9시~ 오후5시
*장소: 공지천 인조구장
*초청 참가팀: 춘천 경찰서 축구팀 / 춘천 개인택시기사 2개팀
한마음축구단(감독: 장경룡목사) / 각 교단 목회자팀
포이멘축구선교단(춘천목회자)
*참가자 전원 선물, 식사제공
행복하게 하는 푸짐한 경품(최고급자전거 등)

※ 포이멘 축구 선교단 회원모집
· 회 장: 고영일 목사(011-361-1691)
· 감 독: 박문수 목사(011-372-5304)
· 총 무: 한덕현 목사(016-406-5791)

| 역사자료

춘천성시화운동의 도약 (略史 5)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성시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해를 거듭할수록 성시화운동이 활기를 띠어갔으며 춘천에서 성시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전용태 검사장이 청주 지검으로, 양인평 법원장이 대전으로 전임해 갔고, 다시 전용태 장로가 인천, 대구로 양인평 장로가 부산으로 부임해감에 따라 청주,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성시운동본부가 생기고 홀리클럽이 창립되는 등 성시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케 되었다.

성시운동본부 발족 이듬해인 97년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6.25를 앞두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초청하여 공지천 광장에서 민관군이 망라하여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시국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

11월 21일에는 기독교 기업으로 성공한 이랜드 박성수 사장을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들의 영성계발을 위해 영어 영성개발 훈련을 갖기도 했다.

또 11월에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는 4백 페이지가 넘는 성시운동 책자를 춘천성시운동본부 이름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춘천성시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98년에는 기윤실 대표로 있는 서울대 교수 손봉호 장로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춘천홀리클럽의 탄생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된 홀리클럽의 탄생은 처음부터 성시운동을 이끌어 나갈 평신도 지도자들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995년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해 온 전용태 장로가 수요일마다 순복음춘천교회 저녁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하루 간증 설교시간에 전도를 통한 성도의 배가운동을 촉진시켰다. 그는 솔선하여 2 · 3명의 새 신자를 교회에 출석, 등록시키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해 온 기관장이나 회사의 사장, 회장 등은 대개 춘천에서 이름 있는 유지급 인사들이었다. 이렇게 모여든 새 신자들이 열 명 스무 명을 넘어 50명, 60명, 어느덧 백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전 장로는 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 예배 한 시간 전에 교회 교육관에서 새 신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의 모임을 '춘천홀리클럽'으로 명명하여 1996년 6월 8일 경기도 가평군 휴양촌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춘천홀리클럽이 탄생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여호와의 날

– 스바냐 1:14~16



정 선 문 목사
[춘천 제자들교회]

웬만한 범죄는 사람들을 자극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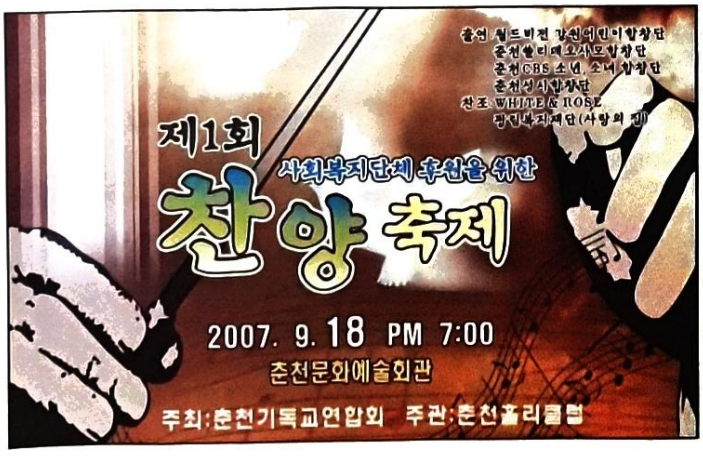
보험금을 노려 부모를 죽인 아들의 이야기도 며칠만 지나면 까맣게 잊혀지고 만다. 물론 부정적인 사건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유익이 없지만, 우리는 망각의 기능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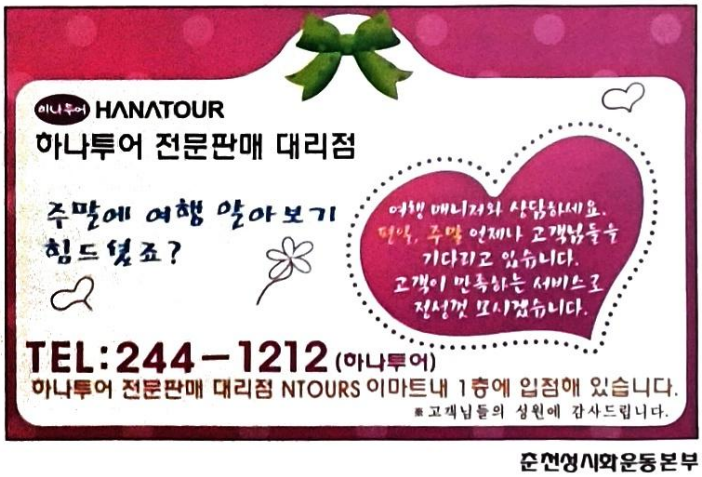
우리의 비극은 만연된 사회악과 범죄 속에서 스스로 너무 의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적인 부부, 비정상적인 관계에 비춰볼 때는 우리 자신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게 확실하다. 사람을 죽인적도 없고, 실정법상 큰 문제를 일으킬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특히 나 같은 목회자는 더욱 그러하다. 주일, 수요일, 새벽예배 꼬박꼬박 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공식적인 범죄행위는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돌을 맞더라도 자갈돌 몇 개면 충분하리라...

그러나
아, 이제는 깨어나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자.
로마서 1장 28-32절의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하자.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뜻을 묻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자(습1:6).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자.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자(습1:5).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삶으로는 세상과 돈을 섬기는 창녀 같은 모습을 회개하자.
여호와의 거룩성과 불순종의 제앙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영적안일과 불신앙을 조장하며(습1:12)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들었던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회개하자.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야 할 때이다.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또 치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오는 망치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십자가 밑에 달려 나가 회개의 눈물, 지유의 눈물을 쏟아야 할 때이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삶

시인과 화가, 부부의 이야기





시인 김학철 안수집사, 화가 김명숙 권사(소양제일교회) 편입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

외곽 언덕 위의 하얀 집(동면 김정리)을 찾아 나섰다. 시인 김학철, 화가 김명숙 부부의 처소이다. "에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자,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교활함이 없도다!"(요 1:47)라고 하셨 듯, 편안한 미소로 우리를 맞는 김학철 안수집사는 교육자(춘천 성수여자고등학교장 역임)이며 시인(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1972년 『詩法』동인으로 詩作활동을 시작하심)임을 그의 시처럼 금방 알 수 있었다.

꿈속에 사향 주머니 하나 얻어
허리를 둘렀더니
잠을 깨어
옷깃을 여미어도
향기가 온몸에 가득하네 -「因緣」전문

그의 향기가 가슴을 떨리게 하고 있는데, 부인 김명숙 화백(경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현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미술과)이 나와 우리를 화실로 인도하자 나는 태초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며, 화가의 세계가 영적인 복의 풍부함을 드러내고 있었다(10월 20일과 11월 마지막 주간에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찾아가 내가 본 것을 그대도 보길 바란다). 그녀의 세계 속에 심취하다 이 부부의 세계가 궁금하여 거실로 옮겨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자리를 잡았다.

품에 기대어

아름다운 음악이 거실에 흐르고 그들의 처소는 부부의 삶을 대변하듯 징검다리처럼 단순하게 꾸며져 있어 안식을 방해할 수 없었고, 다만 우리의 대화만이 음악을 대신할 뿐이었다.

교무실에서 마주 앉아(성수고등학교에서 국어, 미술교사로 만나 결혼) 동행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라"(마 11:29)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온유) 그들에게로 흘러(겸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김명숙 권사는 세벽 기도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미소를 짓게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작품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들의 시와 그림의 세계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김 화백의 그림이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바뀌고 부드러운 천으로 재료를 삼아 염색하며 꿰매며 부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회복시키는 화폭은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이리라.), 그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장직을 퇴임할 때 제자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만의 감사 속에서 특별한 퇴임식을 하였고 은퇴 후 YMCA에서 외국인 주부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시인,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예배와 같다고 여기는 화가, 잡초를 뽑으며 자기 마음속의 잡초를 뽑는다는 이들 부부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독교 예술은 죽었다(?)

팔랑팔랑 날아가는 나비를 통해 지친 우리에게 안식의 세계로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풀의 꽃으로 교훈하시듯(마 6:26-30; 행 14:17; 롬 1:20; 벧전 1:24), 기독교 예술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민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진열장의 블빛으로 빔하늘의 총총한 별빛을 잃은 세대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엡 1:10)이 어찌 예술 세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부부는 가로수가 잘리고, 눈에만 띄게 하는 무질서한 간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춘천이 아름다운 도시인 줄만 알던 지인들이 막상 춘천을 방문하고 나면, 특징 없는 아파트 숲만 무성하다는 유감의 소리를 들을 때도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회해한 자로서 그들의 예술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예술가들에게 춘천기독교연합회도 길을 만들 수 있는 날을 소망한다.

그림자 드리우는 마당으로 나와 산 너머로 이우는 햇살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소갈머리 없는 내 머리카락처럼 시인이 가꾼 옥수수를 가리키며 멋쩍이했지만, 내년에는 내 소갈머리와는 다를 것이고, 지금도 학교에서 만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김명숙 화백(60세, 대학원 재학중)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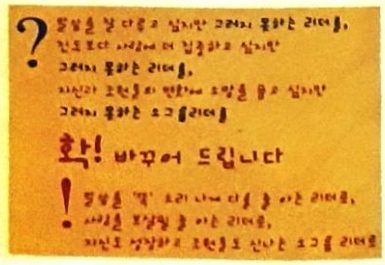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SItc 춘천 일정(4주 8회)
Small group Leader Training Course

일 시: 2007년 10월 1일 ~ 23일(4주 8회) 오후 7시30분
장 소: 춘천제일장로교회
공동주관: 춘천기독청년포럼, Young2080 사역본부
등록마감: 2007년 9월 15일
등 록 비: 65,000원
문 의: 엄기홍 목사 011-366-7845
이병철 목사 017-254-3162
계좌번호: 농협 303812-52-008361 청년연합포럼(이순복)

10/1 리더와 말씀 다루는 능력(고직한 선교사)
기초 IBS 훈련과 실습(DGM, 장완익 목사)
10/2 소그룹 혁명(고직한 선교사)
GBS 실습과 평가1
10/8 GBS 인도 역량을 높이려면(장완익 목사)
GBS 실습과 평가2
10/9 GQS 인도법(장완익 목사)
GBS 실습과 평가3
10/15 리더의 제자도(양승훈 목사)
중급 IBS 훈련과 실습(DGM, 장완익 목사)
10/16 소그룹 Body Life(양승훈 목사)
GQS 실습과 평가1
10/22 소그룹 리더십(전경호 목사)
GQS 실습과 평가2
10/23 리더와 부흥(전경호 목사) / 수료식
과제: 1.QTzine, 2.소책자 읽기, 3.QT Clinic

진행: 7:30 - 7:50 찬양
7:50 - 8:00 영상
8:00 - 9:10 주제별 강의
9:10 - 10:30 소그룹 워크샵
(DGM 2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 오봉산





강원도 춘천시와 화천군 간동면 사이에 솟은 오봉산(五峰山 · 779m)은 아름드리 소나무와 화강암 바위가 어우러진 암릉을 걸으며 소양호를 내려다보는 맛이 좋아 오래 전부터 많은 등산인 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명산이다. 산림청에선 '산세는 크지 않으나 바위와 수목이 어우러진 경관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100명산으로 선정했다.

특히 오봉산은 배를 타고 가서 산을 오르고 다시 배를 타고 나오는, 산과 물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이다. 오봉산의 동쪽에 있는 부용산(882m)이나 서쪽의 검은산(794m)도 오봉산에 뒷지않은 봉우리이지만 두 산은 육산인 반면 오봉산은 암산인데다 암릉들을 즐즐이 거느리고 있어서 배를 타고 가까이가면서 보면 단연 군계일학격인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주봉 명칭은 경운산이었지만(높이로 따져서) 이제는 오봉산을 주산으로 부른다. 암릉에서 능선 사이로 보이는 푸른 호수와 하얀 바위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울창한 숲 지대는 또 하나의 경이적인 볼거리이다. 유서 깊은 청평사와 소양호를 품고 있어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 자체로도 명산의 반열에 든다.



등산코스

1. 소양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청평사 아래 선착장에 내려 청평사를 걸쳐 정상에 올랐다 되짚어 내려오는 코스.

2. 춘천에서 양구로 가는 46번 도로를 타고 춘천시와 양구군 경계인 배후령에서 내려 700미터 가량 걸어 주능선에 올라~정상~청평사 코스를 따르거나, 반대로 청평사~정상~배후령 코스. 대부분의 등산인들은 배후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는데, 표고차가 크게 나지 않아 쉽게 정상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변의 산과 연계한 능선 코스 :

▶동남쪽으로 나있는 부용산(882m)과 봉화산(735m) 코스 - 봉화산은 소양댐 앞 북측 건너 보이는 산으로 소양호의 드넓은 담수를 바라볼 수 있다.

▶서남쪽으로 나있는 경운산(794m)과 마적산(612m) - 마적산은 오봉산을 모산으로 하고 소양강댐 하류 곱자락에 짐겨 있어 홍수조절을 위해 댐 물을 방류할 때 가장 조망하기 좋은 자리로 시중의 소양댐 방류 사진은 대부분 이곳에서 촬영되었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수월한 상행과 소나무가 밀집 서식하여 솔잎 향을 만끽할 수 있다.

제1봉에서 제5봉까지 걸어보다

오봉산에는 이름 그대로 다섯 개 봉우리가 솟아 있다. 서쪽의 배후령부터 제1봉(나한봉)~제2봉(관음봉)~제3봉(문수봉)~제4봉(보현봉)~제5봉(정상 · 비로봉)이 차례로 주능선에 늘어서 있는데, 이중 제5봉이기도 한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암릉이 특히 빼어난 풍광을 지녔다.

배후령 정상에서 산행 시작 배후령(600m)으로 가려면 춘천 쪽에선 샘밭 삼거리에서 46번 국도를 타고 양구 방면으로 10km쯤 오르면 된다. 등산로 초입은 입간판과 간이매점 사이로 뚜렷하게 나 있다. 가파른 산길을 15분쯤 올라가면 '←오봉산 1.3km 50분, →경운산 1.2km 50분' 안내판이 있는 삼거리다. 여기서 왼쪽 길로 10여 분 오르면 주능선 삼거리에 닿는다.

▲ 제 1봉

완만한 능선을 따라 5분쯤 가면 제1봉. 정상에는 '제1봉(나한봉)'이라 쓰인 팻말이 소나무에 메달려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봉우리는 팻말이 달려있지 않아 정확히 몇 번째 봉우리인지 알아내기 까다롭다.

▲▲ 2봉

내리막을 잠깐 내려서서 참나무와 철쭉나무 빼곡한 완만한 산길을 20분쯤 가면 남동쪽으로 소양호가 살짝 내려다보이는 제2봉에 닿는다.

▲▲▲ 3봉

제2봉에서 제3봉 사이는 바윗길이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 쇠줄도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편이지만 왼쪽으론 까마득한 벼랑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10분쯤 가면 정면으로 청솔바위가 올려다 보인다. 바위틈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경이롭다. 이어 도착한 제3봉 정상에는 1989년 이곳에서 추락사한 등산인을 기리는 추모비석이 소나무 아래 세워져 있다.

▲▲▲▲ 4봉

제3봉부터 제4봉까지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발길이 자꾸 멈춰지는 아름다운 암릉길이다. 바람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에도 기상을 잃지 않고 히늘을 향해 곧게 솟아오른 아름드리 노송들이 곳곳에 있어 마치 동양화 속을 거닐고 있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암릉으로 이뤄진 제3봉을 내려선 안부에서 제4봉을 오르려면 경사 50도쯤의 가파른 바위지대를 지나야 한다. 쇠사슬도 설치되어 있고, 발디딤도 괜찮다. 또 산길의 폭도 2~3m 정도로 넓은 편이지만 바윗길 양쪽이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야 한다. 역시 암릉의 경치는 좋다. 이렇게 5분쯤 오르면 제4봉. 서쪽으로는 지나온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으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너머로 오음리 분지가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46번 국도 너머로 병풍산, 사명산이 손에 잡힐 듯하다. 또 파란 소양호 너머로 가리산, 대룡산, 구절산, 금병산이 산물결로 넘실댄다.

▲▲▲▲▲ 5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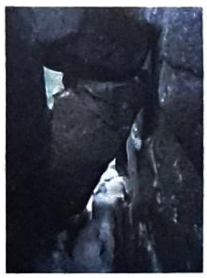
제4봉을 떠나 숲속 능선길로 5분쯤 가면 정상인 비로봉이다. 정상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으나 숲으로 에워싸여 조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남릉으로 10분쯤 내려가면 이윽고 경사가 가파른 암릉길이 시작된다. 역시 소나무 이우러져 경치는 좋으나 오른쪽 선등계곡(청평사계곡 방면은 대부분 절벽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좋다.

감상 포인트



1. 오봉산의 가장 흥미로운 능선이 쇠줄이 걸린 2봉~3봉 사이의 바위지대.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 ◀◀





2. 오봉산 정상이후 청평사까지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봉우리들 중 세 번째 암봉과 네 번째 암봉 사이에 있는 홈통바위. 사람 몸 하나 빠져가기가 버겁다. ◀◀



3. 주봉에서 남쪽인 청평사 쪽으로 하산 하다 만나는 688봉이다. 당연히 소양호와 더욱 가까워진 만치 소양호 경관이 좋다. ◀◀

한복 침구 예단
線 혼례이야기
혼례의 새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호광장 사거리에서 강원대 후문쪽 120M
HP 016 347 6614 T 033 252 1525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나래디자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포·토·에·세·이

이 가을의 발걸음



시.김 홍 주 시인(호자감리교회 권사)
두 번째 시집 「어머니의 노래엔 도돌이표가 없다」에서

'주께서 발고 가에
물을 넉넉히 대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손길 깃든 가을날
온 대지 위에
기쁨의 물임들이 솟습니다

어느새 내 곁에 찾아와
문 두드리며
올해의 곡을 익우시는 주님

당신의 길에 기쁨 가득하여
꽃길 위에서
당신과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칠곡의 가시밭 길 이었으나
광야의 목마름이었으나

당신이 찾아와 손 내민 지금
숲은 당신을 향해 찬양이는
입들의 찬미소리로 아득합니다

건강상식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그 원인과 예방

방 희 균 원장 (대광한의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감기도 쉽게 걸리지만, 이와 함께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심하면 귀까지 가려워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증상이 바로 "알러지성 비염"이다. 알러지성 비염이란 알레르기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무해한 물질에 대해서 일부 알레르기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기 항원(allergen)이라 부르고, 이 과민한 반응이 코에 나타나는 질환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한의학에서 분체(噴嚏)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분체는 몸에 있는 폐장의 기, 비장의 후천적인 기, 신장의 선천적인 양기(陽氣)가 허약해져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람마다 각기 체질의 특성에 따라 성격이나 음식의 기호, 체격,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한 것까지도 차이가 나며, 특히 어떠한 물질에 대한 특이한 반응소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물질에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을 때, 그 물질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드기, 집먼지, 등 다양한 항원을 가지고 있으나 한의학적으로 보면 피부 모공에 있는 원양(元陽), 즉 인체의 표피들을 방어하는 기가 허약해졌거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알레르기 항원 외에도 찬 공기나 갑작스런 온도변화, 담배연기, 먼지, 공해물질 등에 대해서도 비 특이적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오염이 심한 곳, 먼지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등에서 증상이 심해지고, 계절별로 황사 등 오염이 많고 외출이 잦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발병에는 미숙한 면역체계 혹은 오랜 감기나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신체적 인자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지속적으로 또는 다량으로 폭로되는 환경적인 인자가 함께 관여한다. 대개 소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생 중 어떤 때에나 발병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발병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특정한 계절에만 증세를 나타내는 계절성 비염과 일 년 내내 증세를 나타내는 통년성 비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년성 비염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통년성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집 먼지진드기로,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약80%가 양성반응을 보일 정도로 통년성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집 먼지진드기는 크기가 약 0.4mm로서 가정집의 침대나 카펫, 소파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들의 분비물, 배설물 혹은 부스러기들이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털이나, 비듬, 분비물, 그리고 곰팡이, 바퀴 벌레 등도 흔한 원인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은 코막힘,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 등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며, 눈이 가렵거나 코 안 및 피부 등이 가려울 때도 있다. 특히 환절기의 기온차이에 적응력이 떨어질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 과로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체온 조절을 알맞게 하고 실내습도를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발인자에 대한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공해에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몸의 기능 즉 면역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하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그 발생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가 정

추석 황금연휴, 감사와 사랑의 시간으로



추석은 우리 민족이 신국시대부터 지내온 명절로 그 해의 첫 곡식과 과일을 먹으며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열매의 축복을 주셨던 초실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인 것이다. 하지만 추수감사절과 추석은 차이가 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곡식의 추수를 마치고 양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반면, 추석은 첫 곡식 수확의 공을 조상들에게 돌려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할까? 우선 조상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지방을 쓰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또한 신령이 화복을 내린다는 것, 천신과 자손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 등의 개념은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조상의 삶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행위는 성경적인 문화이므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조상에 대한 추모는 조상을 신령으로 생각하며 제사하는 행위가 될 때는 용납할 수 없지만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생전에 가르쳤던 삶에 대해서는 추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있다. 추석예배는 이러한 상황에 맞도록 한 해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과 부모님의 은덕을 감사하는 추모,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석예배는 가장이나 집안에 있는 직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올 한해의 수확과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온 가족이 서로 신앙 안에서 화목하자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좋다. 찬송은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예배 후에 선조들의 신앙생활이야기, 고인의 유언이나 신앙생활, 가르침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추석예배로서 선교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사귐의 장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편집부]

[추석예배순서]

묵 도 ---------- 인 도 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새 587장(감사하는 성도여) ------ 다 같 이
대표기도 ---------- 가족중 믿은 이
성경봉독 ---------- 잠언22:28 -------- 믿은이
설 교 ----- 조상이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 인 도 자
찬 송 ----- 새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추 모 ---------- 가 장
• 선조들의 유언이나 살아계실 때의 교훈을 이야기함
• 가정의 전통 등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함
가족소식 ---------- 인 도 자
•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서로 이야기함
• 지금까지 감사한 일과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나눔
기족기도 ---------- 다 같 이
1. 감사기도 2. 자신의 삶과 신앙을 위해
3. 생업과 자녀를 위해 4. 특별한 소원을 위해

[설교 잠언22장 28절]

오늘날 사람들은 소중한 유산, 즉 신앙의 유산을 값없게 여깁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보화처럼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난과 긴장, 위협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선교사들이나 그들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우리 조상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 부흥이 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해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에 관한 하나의 증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조상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지역들은 그 선배들의 자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육신적 자손들은 그 좋은 역사와 배경,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답던 조상들의 순교적 신앙과 정신은 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자손들은 오랜만에 맛보게 된 자유와 부요와 편안함에 취해 고난 속에서 지켰던 신앙과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회개와 칠저히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자유함, 부요함,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조상들이 세우고 지켜온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는 자유와 부요와 평안함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증케 만들고 영적으로 죽입니다. 성경은 조상들이 세워놓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계석은 조상들이 준 삶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흐려져 가는 신앙을 되찾으려는 열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물려준 조상들의 지계표를 옮기지 맙시다. 그 회개의 신앙, 순교적 신앙,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애썼던 신앙을 이어갑시다.

[설교 편집부 권기채]

예 향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조지아 주에 있는 한 신문사가 약 200년 전에 자사 광고란에 "건강하고 힘센 노예를 팝니다"라는 광고를 내었던 것을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금과 은이 중요했지, 몇 십 불 정도면 건강하고 일 잘하는 흑인 노예들을 사고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없는 것이다.

(편집부)

춘천기독청년아카데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독교세계관 학교

1. 기독교세계관과 캠퍼스 운동
2.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세계관
3. 캠퍼스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략
4. 통일시대를 사는 기독청년의 과제와 소명
5. 자본주의와 한국기독교 1
6. 자본주의와 한국기독교 2
7. 하나님 나라 운동과 공동체 운동 1
8. 하나님 나라 운동과 공동체 운동 2

*일시: 9월 8일~29일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주관: 기독청년아카데미
*문의: 02-764-4116, 010-7417-2226 최인기

성 시 만 평

이 관 형



Fire again 2007 춘천연교대회의 불길



기독교와 사회복지



정 동 환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구조를 띠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우리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이건과 선진국들의 복지정책 또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고도의 과학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문제, 여전히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문제, 급증하고 있는 이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 청소년 문제, 점점 심각해지가는 빈부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양극화 문제 등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사회병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봉착해 있다.



당신의 사랑은 그토록 살고 싶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간절히 걷기를 원하는
한 장애인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정이 그리운 무의탁 노인에게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맛있는 밥이 되고 따뜻한 집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모든 이들의 꿈을 실현시킵니다.
마음만 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복지과제는 과연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몫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가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요구되며, 나아가 민간단체 및 종교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효율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아보면 기독교(교회)는 사회사업 실천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와 주체로서 근대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활동을 위한 자금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에의 참여, 사회공헌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김윤제(1999)는 그의 연구논문「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선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 참여의 문제점

이념문제

신앙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타락한 현상으로 보는 태도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를 세속화로 인정하고 사회문화로 보는 견해이다. 기독교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도 교회 자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기 쉽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의 문제

사회복지사업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교회는 가용 자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동원하는 데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첫째, 교회의 예산편성에 교회사업 자체가 우선권이 있으며 자금 지출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인적자원이 풍부하지만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도자가 극소수이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없으며 자원동원에도 비협조적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인간이나 사회적 문제 보다는 교회 내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 복음과 사랑의 이론에는 강하나 실천적인 면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상의 문제

교회의 물적, 인적자원을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데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첫째, 교회 개방의 문제로서 교육이나 세미나와 같은 집회장소로 적합하지만 대개의 경우 교회의 집회 이외의 용도로는 개방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교회는 교회의 자체 성장만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함께 사회복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통해 영혼구원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시고 몸소 해결해 주신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비난과 질타에 눈 질끈 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요청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처럼 겸허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 몸담고 일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이웃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접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베풂어 한 생명을 구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리고 믿는다.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샘물교회 19명의 단기선교팀**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의 순교에 이어 두 자매가 무사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억류 중에 있는 19명의 안전과 건강, 특히 평안하고 김건하여 탈레반과의 협상대로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의 발판을 놓는 기회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국의 안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심각한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북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에게 참된 지혜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2007 춘천 성시화 선교대회**

9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춘천 성시화 선교대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며, 특히 모든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시화의 불이 새롭게 진화되는 생명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춘천을 위해**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특히 춘천 서울간 추진중인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전철이 기한 내에 마쳐지고 균형 있는 경제 문화 교육의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또한 이런 꿈과 생명의 도시 춘천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 있는 도지사와 시장이 되도록.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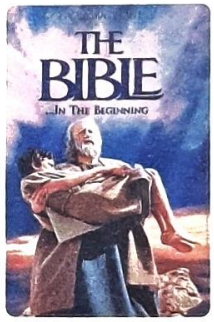
노아에 관한 세 가지 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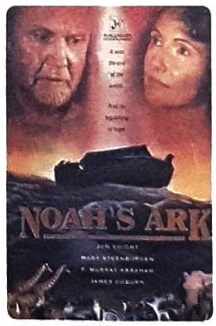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에반 올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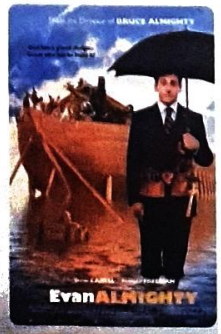
큰 배를 뜻하는 '선(船)'은 방주 주(舟)에 여덟 팔(八), 입 구(口)자의 조합인바, 여덟 식구가 들어간 배라는 뜻이니 바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들어간 방주에서 연유한 한자라고 풀이된다. 이 유명한 사건은 현대에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다음의 세 편이다.

성경의 창세기를 고스란히 영화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영화 『천지창조』는 <무기여 잘 있거라>, <백경> 등 명화를 만든 거장 '존 휴스턴' 감독(1906~1987)이 <패튼 대전차군단>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조지.C.스콧을 비롯하여 리차드 해리스, 피터 오툴, 에바 가드너 등 헐리우드의 스타군단들을 동원하여 1966년에 만들었다. 아담과 이브의 탄생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다시 돌려받는 장면까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고스란히 담았는데, 감독 자신이 나레이션을 하고 노아로 출연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상영 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던 감동이 생생하다. 아브라함과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바치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 보여 더 그랬으리라. 아브라함 역을 맡은 스콧의 이 연기는 영화사의 명연기로 남아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모든 짐승들을 임수 한 쌍씩 태우는 장면도 걸작 스펙터클 중 하나이다.

이 유명한 장면을 "큄버거 힐"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은 '존 어빈' 감독이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1999년 TV 영화로 제작하였는데, 어이없게도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 등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뒤섞어 시간배열 상 짜 집기를 하였다. 이러한 시대묘사의 오류 말고도 각본이 엉성하고 연출도 수준미달로 보이지만 40여주간의 홍수 동안 배 안에서의 일상에 대한 세밀한 상상과 하나님과의 갈등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성과는 인정해 주어야겠다. 1978년 <귀향>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마이클 베이의 <진주만>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역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부친인 '존 보이트'가 노아로 출연하였다.







최근에 현대 코믹영화를 주로 제작해 온 젊은 감독 '톰 세디악'이 노아의 현대판 코믹 패러디로 『에반 올마이트』를 만들었다. 올해 개봉한 작품으로, 전작 유명 코믹 배우 '짐 캐리'를 앞세운 <브루스 올마이트>에 이어 신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경쾌한 코믹터치로 유쾌하게 고민하고 묘사하였다. 엥커맨에서 하원의원으로 성공가도를 가던 주인공에반(스티브 카렐)이 신(모건 프리먼 役)을 만나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리를 살짝 꼬집기도 한다.

성경을 그대로 고증학적으로 재현한 앞의 두 작품에 비해 그 감동이 더 강하고 신선하며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만의 느낌일까? 그러나 그 감동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것은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편집부 김춘배]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촌감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당장로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국민일보춘천지사	강원기독문화연구소(김기태)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자연유치원	제시뉴욕	김 길 홍
김학철 김영숙	김 준 언	김 진 삼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심 인 섭	임 희 방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최 에 식
한 희 현	황 병 친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 영 춘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고 재 만
김 춘 배 이 관 형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운 영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알 림

칼 럼



한국교회에 중보기도의 불을!

사공 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천사들의 모습을 본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할 때만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기도 중 특히 남을 위해 기도(중보기도)하는 시간은 더욱 훌륭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젊은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이 아프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중보기를 가르쳐 주셨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이다. 한국교회치고 이 일로 중보기도 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것이고 또한 이만큼 중보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 있었겠는가?

이 기회에 중보기도의 대가인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 배웠으면 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은 범죄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앞길을 가로 막고 중보의 기도를 하였다(창18:22~33). 웬만하면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6번씩이나 바꾸신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6번씩이나 결정을 바꾸셨을까?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일이나 자기의 피붙이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때 모세는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기도했다. 즉 나를 먼저 죽여 달라는 기도였다(출32:10~35).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중보자는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각오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다.

❀ 알려드려요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강습회
일시: 9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12주간
오전반10:00~오후1:00 저녁반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등록금: 3만원
문의:253-1443,242-8291
[http://cafe.daum.net/cefch/]

◆ 예스럼

1) 목동모임
일시: 9월 1일(토)
중학교-오후1시, 고등학교-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4층 예스컴사무실

2) YES,COME PRAISE
일시: 9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강사: 강신오 선교사/ 송은미 선교사 파송식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camp]
한승연 간사 016-369-6994 신유정 간사 010-5422-2321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LTC 중 · 고급훈련
일시: 9월 17일(월) ~ 19일(수) 오후7시~10시
장소: 춘천CCC회관
문의: 254-5776
※CCC어린이집 교사모집 1인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2007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9월 13일(목) ~ 10월 12일(금)
책자가격: 권당 2,000원
문의방법: 033)252-1128, 010-7152-0135 이선희 간사
• 전화나 FAX 또는 E-Mail로 신청(신청자 이름, 신청부수 게재).
• 책자 가격과 우편료를 입금하시면 우송해드립니다.

◆ IVF

1)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9월 5일(수) ~ 6일(목) 장소: 춘천 IVF회관
2) 간사모임 개강
일시: 9월 5일(수) 장소: 춘천 IVF회관
3) AMP 개강
일시: 9월 12일(수) 오전10시 장소: 춘천 IVF회관
4) 대표간사협의회
일시: 9월 18일(화) ~ 21일(금)
5) 제자학교 개강
일시: 9월 중 문의: 252-5200

◆ JDM

1) 개강예배
일시: 9월 6일(목) 오후7시 장소: 춘천은누리교회
2) Pre-TTS 개강
일시: 9월 10일(월) 오후7시 매주 월요일 8주간
장소: 춘천지구회관
3) 창립30주년 감사축전
일시: 10월 3일(수) 오전10시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9월 3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심광교회
2) GMF 국내사역자들을 위한 Leadership Training
대상: 국내 선교사, 본부 및 지부 간사, 협력간사
일시: 9월 4일(화), 오전9시~오후7시
장소: 서울 세중앙교회 교육관 3층 고등부실
내용: Team Building Workshop (2)
강사: 유제필 소장(J.P consulting 대표/한국리더십센터 강사)
3) GBT 국내 사역자 수련회
대상: 국내 선교사, 본부 및 지부 간사, 협력간사
일시: 9월 5일(수)~6일(목)
장소: 봉산포 해수욕장
4) 위클리프 스쿨 개강
일시: 9월 10일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강사: 이성우, 조광주, 윤누가 선교사
등록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GBT춘천지부 사무실 이전-운교동 CBS옆 대용빌딩 2층 예담교회 내

◆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 신광교회 유일근 목사

◆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 Vision School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일시: 9월 7일(금) ~ 12주간(매주 금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효자감리교회
등록비: 10만원(50%할인가)
주관: 인터콥, 효자교회
문의: 255-8865 / 010-3015-8865 김종호 목사

◆ 춘천기독청년아카데미

봉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독교세계관 학교
• 일시: 9월 8일~29일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3시
•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 주관: 기독청년아카데미
• 문의: 02-764-4116, 010-7417-2226 최인기

◆ 2007년 강원도기독교미술인전

일시: 2007년 8월 31일(금)~ 9월 6일(목)
장소: 춘천미술관(241-1856)
※작품판매의 수익금은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사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선교세계관학교(MPS) 13기 안내
✚ 오리엔테이션 : 2007. 9. 1.(토) 오후 3:00~6:00
✚ 강 의: 9. 8. ~ 12. 1. 매주 토요일 오후 3:00~8:00
✚ 장 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 연 락 처: 033)253-3399, FAX 253-3399, www.mpscc.net
H.P 019-9903-1148, 011-363-0926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영원, 유일한 가치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크리스챤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선교세계관학교(MPS)는 보내는 선교사 또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이다. 2,3세계 선교,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를 향한 사역, 세계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 10/40창, 전략적 동역관계 등의 비전과 전략들이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품은 World Christian 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종 합

■ 마음을 여는 작은 여행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YMCA가 주관한 '2007 한부모 가정의 아동캠프'가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8월 9일 10일 이틀간 천원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마음을 여는 작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캠프에서는 40명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해하고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모습을 찾는 동시에 자존감 형성 및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영성캠프



강원도미술인협회(회장:이은식집사) 임원은 8월 10일 강화도 소재 성산에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캠프'에 참석하였다.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영성회복과 소명의 갱신'이라는 주제로 한국미술인선교회 현대기독교미술학회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미술학과 공동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200여명의 기독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성록교수의 '렘브란트의 신앙과 예술', 김병호교수의 '현대기독교미술의 이해'의 특강과 함께 이등원목사(지구촌교회)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미술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여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취재 이관형]

■ 예담교회 이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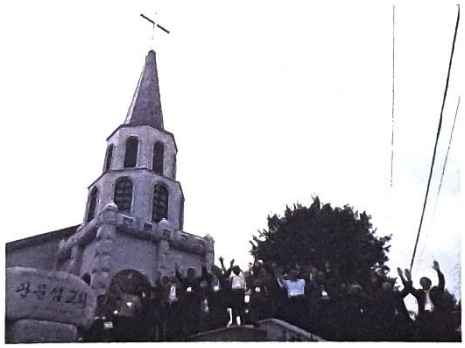
예담장로교회(담임:권기찬목사)는 8월 25일 주일 4시 춘천시 운교동 대용빌딩 2층으로 확장이전하고 연합회 임원들과 교단 지도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이어 미리내 색소폰 합주단의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

광복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광복 62주년을 맞은 8월 15일(수) 오후7시30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는 신성교회에서 약 2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증기목사(세사랑교회)는 "너희가 살아나서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과거의 침략과 전쟁의 쓰라림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히 이 세상을 섬기며 영권 · 인권 · 물권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였다. 설교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시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며



8월 13일(월) 오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교회에서는 평화한국(대표:허문영박사)이 주최한 '제1회 국제평화기도회'가 열렸다. 북한 구원과 평화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와 평화한국회원들,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차 방한한 인도 미국 호주 독일 등 7개국에서 방한한 목회자 100여명과 CBMC회원들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난의 모습이 담긴 '과거'와 '현재'의 동영상을 관람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춘천에서도 춘천성시본부사무처장 정재호목사와 기독교연합회 교단분과위원장 지용찬목사, 사회봉사분과위원장 김종호목사, 강원대 역사학과 조인형명예교수를 비롯해 통일나눔터 회원6명이 참여하여 남북 분단의 현장을 목격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 2007선교 성시대회 준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와 홀리클립, 창조도시시민포럼 임원진과 변혁한국 이영길선교사는 8월 24일(금) 오후6시 연합회사무실에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선교 · 성시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지도자 초청기도회와 영역별 지도자 오찬세미나, 성시세미나, 창조도시포럼, 산상기도회의 진행과 순서를 논의하고 선교대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7선교대회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는 9월 2일부터 열리게 되는 2007 춘천선교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 오전6시30분 석사교회에서 열었다. 연합회 임원들과 분과위원장들, 홀리클립 임원들, 월드비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춘천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춘천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 기아대책 전국 이사 세미나

춘천기아대책 이사진(이사장:원종국목사)은 8월 27~28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교회와 함께 가는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전국 이사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전국 64개 지역회 이사와 14개 운영시설 시설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아대책 3대 운동(교회와 연결해 사역하는 '겨자씨 운동', '카스(CAS:Church As Servant)운동', 1인 1계좌, 1천원씩 보내는 '사랑의 111운동')의 성공사례를 나눴다.

[취재:김미경]

미술치료기본과정

*모집기간 : 9월 3일~10월 2일 *수 강 료 : 20만원
*개강일시 : 10월 2일(화) 오후6시 개강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 12주 동안 매주 1회 4시간(45분×4)

성폭력 상담사

*모집기간 : 9월 3일 ~ 11월 8일(주2회)
*개강일시 : 10월 2일(화) 오후6시 개강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 6주 동안 매주 화, 목 주2회 8시간(45분×8)
*수 강 료 : 25만원(*단 교재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5만원 별도)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 문의처 : 본원 사무실 (☎ 033-241-8801, 8802)
(운교동 춘천 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 3층)
원장: 김성호 목사 부원장: 권영식 목사
☎ 011-9735-5191(간사) 011-372-9100(원장)

[추가모집]

자격증 반: 노인 요양 보호사 2급, 1급 / 심리 상담사 2급, 1급 / 장례 지도사 2급, 1급

* 모집기간: 9월 7일까지
* 교육시간: - 심리 상담사 2급 과정, (목) 오후6시~9시
- 노인요양보호사 2급 과정, (월) 오후6시~9시
- 장례 지도사 2급 과정, (금) 오후6시~9시
* 교육기간: 16주 동안 매주 1회 4시간(45분×4)의 수업과 실습
* 교육장소: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35만원
(*단 교재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5만원 별도)
* 1급 과정 : 2급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소정의 과정(수업료 35만원)을 마치고 1급 자격증 시험(수험료 5만원)에 합격한 이에게 1급 자격증 발급

천연화장품, 비누만들기 강좌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 강 료 : 등록비-1만원, 수강료-월 4만원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 별 자격증 취득 가능
*여선교회 사업으로 활용도가이주 높습니다.

성전(중 · 소교회) 꽃꽂이, 동양꽃꽂이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 소교회 성전꽃꽂이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동양 꽃꽂이 반)
*강 사 : 양금환 교수(송 플라워 춘천지회장)
*수 강 료 : 등록비-1만원, 과정 당 수강료-월 4만원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 별 자격증 취득 가능

fire again 2007

성시화를 위한 2007 춘천선교대회

The ChunCheon Mission Festival for Holycity

선교부흥회
강사 : 장경동 목사, 이용호 목사
일시 : 9. 2(주)~5(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백령문화관

성시연합축구대회
일시 : 9. 4(화)
장소 : 춘천종합운동장

선교 · 성시화대회
강사 : 루이스 부시, 탐 빅터
일시 : 9. 6(목)~7(금)
장소 : 한림대국제회의실

기아체험걷기대회
일시 : 9. 8(토) 오전11시
장소 : 춘천종합운동장

월드비전선명회어린이합창단초청 제14회 춘천어린이연합찬양축제
일시 : 9. 8(토) 오후4시
장소 : 백령문화관

제11회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전
일시 : 9. 1(금)~6(목)
장소 : 춘천문화관

The ChunCheon Mission Festival for Holycity

- **일시** _ 2007. 9. 2 (주일) ~ 8 (토)
- **장소** _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선교부흥회)
  한림대국제회의실 (선교대회&성시대회)
  춘천종합운동장 (기아체험난민걷기대회)
- **주관** _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